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A Study of Urban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Economic Well-Being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계 선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s the important element which has a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economic well-being. Thus the study sets up human & material resources and requirement as an input factor,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s an throughput factor, and economic well-being as an output factor, and then identifies if there are some relationships among them by using a systematic approach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600 employed wives by carrying out cluster sampling and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The 573 cases of them were used as the final data of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he mean, ratio, Pearson's Correration, ANOVA, factors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the SAS/PC⁺.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practical application of information as on input variable, appears the fator which has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throughput factor, that i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 employed wives should manage a lot of resources in rapidly changing social-economic circumstances. So it shows that not only they should take informations open to their daily life and then make practical use of them in managing

* 본 연구는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their family finance, but also they must be capable of judging and accepting reasonable informations in order to gain and manage resource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inance and family members' need.

2)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family economic well-being, focused on the systematic theory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for the information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I. 서 론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양은 경제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Walson & Fitzsimmons, 1993 : 4-5), 경제적 자원은 주로 가구원이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결정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확보 및 경제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구특성의 변화 중 두드러진 현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¹⁾ 특히 가장(家長)의 수입으로만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홀벌이로는 불안해지자 가계에서 맞벌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가계총소득에 취업주부의 소득이 더해짐으로써 전통적인 전업주부 가계와는 다른 소득구조를 형성하며 동시에 부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지출함으로써 다차원적인 가계재무상태를 이루고 있다(Bryant, 1988; Foster & Mammen, 1992; Rubin, Riney & Molina, 1990). 주부의 취업은 하나의 자원으로써, 경제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복지 수준은 취업주부가 벌어들인 소득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욕

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재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그 이유는 가계재무관리는 가계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계선자·강기정, 1998; Savita & Kamala, 1990)에서도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심점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취업주부의 재정 및 취업상태, 가계재무관리, 그리고 경제복지감은 개별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체계적 접근방법은 경제적 측면의 관리행동에 대한 통합적 연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보선, 1996; 김순미, 1993; Enevoldsen, 1994; Hyun, Bauer & Hogan, 1993; Royal, 1995; Walson & Fitzsimmons, 1993). 그러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관리, 경제복지감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 접근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계는 국민경제체제와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단위로, 가계의 구성원은 생활표준의 달성과 욕구충족을 위해 자원을 공유·분배·소비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목표인 경제복지감을 실현하게 된다(Williams & Ness, 1998).

특히 가계관리자인 주부가 취업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나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1997년 49.5%로 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배우자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7%로 미혼에 비해 약간 높다. IMF 경제체제 이후 98년 9월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은 97년 9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일용직의 기혼여성 비율은 높아져 이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아가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취업주부 본인뿐만 아니라 가계의 궁극적 목표와 가정경제복지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체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경제복지감 간의 관계를 체계적 접근에 의해 파악하고,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에 따라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재무관리 및 가계재무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기초로볼 때, 가계의 인적·물적 자원과 동기요소인 요구가 가족체계에 투입되어 관리적 하위체계인 가계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과정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의 변화형태로서 가정경제기여도와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의 경제복지감을 산출하게 된다. 즉 가계의 경제복지 수준 및 만족은 가족체계의 투입요소인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Deacon과 Firebaugh가 관리체계를 개념화시킨 이후 가계재무관리 및 행동, 경제복지감에 대해 체계모형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가 개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보고되었다(강기정, 1999; 계선자·강기정, 1998; 고보선, 1996; 김순미, 1993; Bowen, Lago & Furry, 1997; Enevodsen, 1994; Hyun et al., 1993; McGregor & Goldsmith, 1998; Mugenda et al., 1990; Royal, 1995).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은 연구내용에 따라 체계모형 구성요소의 변인간에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입요소는 요구와 자원 또는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선정되었고, 과정요소에는 계획·수행 차원의 가계재무관리가 다루어졌으며, 산출요소는 경제복지감 등이 포함되었

다. 이와 같은 체계모형은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검증 결과 투입요소에 비해 과정요소가 미약한 몇몇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계재무관리의 체계모형을 지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은 개별가계와 국민경제체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문제나 관리과정에 관련된 요소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용이하므로, 가정경제기여 및 경제복지감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환과정으로서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한 경험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투입요소 : 자원·요구

투입요소는 체계의 산출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변환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투입되는 활동 재료들이다. 투입요소는 체계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자극하여, 투입요소에 따라 체계활동이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Deacon과 Firebaugh (1988), Gross·Crandall과 Knoll(1980), Rice와 Tucker(1986)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한 투입요소에는 가족의 요구, 목표, 동기 그리고 자원 등이 포함된다.

자원은 가계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유용한 물품·물체·현상 등을 말하며, 교환가치가 있고 소유 또는 획득하여,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Rice & Tucker, 1986). 투입요소로서의 요구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대한 심리적 성향, 재정자원에 대한 인지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선행연구(강기정, 1999; 김순미·김연정, 1991; Rodgers, 1995)에서도 가치성향·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가족의 재정목표와 열망·재정적 위험 등이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수준 향상의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투입요소인 자원과 요구는 변환과정과 경제복지감의 산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자

원과 요구(김순미, 1993; 두경자, 1990), 객관적·주관적 자원(최동숙, 1991; Titus et al., 1989),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Rice & Turker, 1986; Royal, 1995)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내용에 따라 투입요소의 구분에 차이가 있으나, 체계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투입요소가 과정요소의 원동력이 되며,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과정요소 :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과 관련한 연구에서 보면, 가계재무관리 행동(계선자·강기정, 1998; 김순미, 1993; Fitzsimmons et al., 1993; Sumarwan & Hira, 1993; Walson & Fitzsimmons, 1993)이나 가계재무관리 행동유형(Prochaska-Cue, 1993; Rodgers, 1995)은 과정요소의 중요한 변인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사용을 통해 관리행동의 산출인 자산축적과 경제생활만족 및 경제복지감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계재무관리의 과정에는 목표설정·표준설정·자원평가·정보수집 등의 계획과 이의 점검·조정·평가 등의 수행이 포함된다(Garman & Fargue, 1994).

한편 가계재무관리의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변환과정인 계획과 수행을 토대로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논의하고 있는데, 계획과 수행에 따라 산출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주요 과정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선자·강기정(1999)의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를 계획과 수행 차원에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체계요소 간의 관계에서 변환과정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Kennickell 등(1997)은 고소득층 8명을 대상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며, 재정관리를 수행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사례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고소득층은 정교한 방법으로 재정계획을 활용하고, 재정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전략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및 가계의 인지유형에 따른 가계재무관

리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통제소재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인지개념을 범주화한 Prochaska-Cue의 개인재무관리유형인 PFMS모델(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을 토대로 작성된 PIFS모델(Prochaska-Cue Inventory of Financial Styl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Prochaska-Cue(1993)는 인지적 재무관리유형을 분석적 관리유형, 총합적 관리유형, 해석이 불가능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마다 재정자원을 인지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시된 PFMS 외에도 다양한 PFMS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순미·양정선(1995)은 Prochaska-Cue(1993)의 척도를 근거로 정보인지와 정보평가 두 차원에 의해 가계재무관리자를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총합적 관리자로 유형화하였다.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을 살펴본 결과, 체계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성이 동일하였고, 총합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 또 분석적 관리자와 감정적 관리자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각각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평가의 연속적 차원보다는 정보인지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를 세부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은퇴계획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4. 산출요소 : 경제복지감

McGregor와 Goldsmith(199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복지감이란 개인과 가족원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과 걱정감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직·질병·파산·빈곤 등의 재정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전체 복지감과 생활의 질의 중심요소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경제복지감은 측정지표에 따라 실제의 복지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복지와 타인과의 경제환경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주관적 복지, 그리고 객관적 척

도와 주관적 척도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복지감 등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그리고 재화와 내구재 소비와 같은 변인(Godwin & Carrol, 1986; Hira, 1987)을 사용하거나 다른 양적 변인들, 즉 재정관리 행동, 저축수준, 부채수준, 그리고 순자산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Fitzsimmons & Leach, 1994). 그리고 최근 문헌에는 재정복지 수준에서보다 추가되는 변인들 예를 들어 ratio 분석이 재정복지감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 결정요소로 이용되고 있다(김연정, 1998; Royal, 1995).

또한 Porter(1990)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가계의 경제복지 개념은 객관적·주관적 척도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객관적·주관적 지표가 상호 영향력이 있으므로 두 척도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McGregor & Goldsmith, 1998; Porter & Garman, 1993).

한편 가계의 경제복지를 소득적정인지·자원적정도인지·재정안정도인지·생활수준과 표준 간의 차이인지·재정상태에 대한 향상감·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Daniel & Maria, 1998; Enevoldsen, 1994; Kathleen, 1994; McGregor & Goldsmith, 1998). 농촌가계의 경제복지 인지를 연구한 Walson과 Fitzsimmons(1993)는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와 가계소득, 저축가능액, 현재 부채액, 소비수준, 순자산의 양,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 경제복지지표로 삼았다. Kratzer(1991)는 농촌여성의 3개 코호트들의 주관적 경제복지감과 통제성향, 재정관리, 그리고 관리과정의 특성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재정상태만족감, 재정상태변화, 그리고 소득적정인지를 경제복지감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Kathleen(1994)의 연구에서도 1980년대 농업위기 기간에 농촌가정의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재정만족과 재정적사결정능력을 조사하였는데,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감에 갈등해결 접근방법(자기노출이해, 협상, 융통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적사결정 능력도 재정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제복지감과 관련한 연구를 토대로 볼 때,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기초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산출로 주관적 경제복지감이 유의하게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출요소로 주관적 경제복지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업주부의 투입요소(자원·요구)·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행동)·산출요소(경제복지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의 투입요소(자원·요구)는 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의 투입요소(자원·요구)는 산출요소(경제복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취업주부의 투입요소(자원·요구)와 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행동), 그리고 산출요소(경제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투입요소

재무관리지식은 이기춘(1988)과 이승신 외(1996)의 연구를 기초로 총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답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최저 0점부터 최고 9점까지의 범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70 이다.

의사소통도는 Goldsmith(1996)의 연구를 기초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적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으로 표시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음을 뜻하며, Cronbach's α 는 .86 이다.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2이다.

생활격차감·소득적정감은 Cantrill의 9점 Likert 자아준거적 성취척도를 기초로 작성된 Royal(1995)의 0점에서 10점까지 분포하는 Likert 생활수준 척도를 이용하였다. 생활격차감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생활수준을 응답하게 하고, 응답자가 느끼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평가하게 한 후, 이들의 차를 구하였다. 그 점수차가 클수록 생활격차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소득적정감은 응답자가 느끼는 가계소득의 적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직업태도는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직업태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주부가 직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1이다.

2) 과정요소 :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재무관리행동은 Walson(1991)의 계획·수행 지표(Planning, Implementing index)와 Fitzsimmons 등(1993)의 가계관리 척도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에 적합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 수정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이 되었고 설명력이 52.0%, 계획 7문항, 수행 9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수행이 효율적인 것을 의미하며, 가계재무관리행동 전체의 Cronbach's α 는 .90이다. 계획의 Cronbach's α 는 .84이며, 수행은 Cronbach's α 가 .85이다.

3) 산출요소

경제복지감은 Royal(1995)의 재정복지 척도와 Walson(1991)의 경제복지감 모델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총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2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배우자가 정규직에 종사하며,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막내자녀가 대학교육기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999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600부가 취업주부에게 집락표집과 비비율 층화표집을 병행하여 배포되었으며, 이중 573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Cronbach's α 계수,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투입요소의 일반적 경향

투입요소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2) 과정요소 및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

과정요소 및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총 평균이 3.54점으로, 가계재무관리 계획의 평균 3.40점, 수행 3.62점으로 가계재무관리 수행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 비율에 따른 분석결과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하위 25%에서 3.0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 상위 25%에서는 3.8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계재무관리 수행은 하위 25%에서 3.2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상위 25%에서는 4.00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복지감의 평균은 2.80점으로 5점 만점에 3점

〈표 1〉 투입요소의 일반적 경향 (N=556)

투입요소	범주형 변수	집단	빈도	%	범주형 변수	집단	빈도	%
	직종	생산판매직		205	36.9	학력	중졸이하	72
사무직			194	34.9	고졸		188	33.8
전문관리직			157	28.2	대졸		158	28.4
연령	~30세		83	14.9	가계총소득 (M=340.41)	150만원	73	13.8
	~35세		125	22.5		250만원	71	13.4
	~40세		81	14.6		350만원	181	34.3
	~45세		129	23.2		450만원	100	18.9
	~50세		75	13.5		550만원	61	11.6
	50세이상		63	11.3		551만원이상	42	7.9
연속형변수		25th	50	75th	Mean	S.D		
투입요소	정보활용도	2.71	3.28	3.57	3.13	0.72		
	재무지식	5.00	7.00	8.00	6.49	1.69		
	직업만족도	2.80	3.00	3.60	3.12	0.65		
	의사소통도	3.33	4.00	4.70	3.88	0.88		
	생활격차감	5.00	6.00	6.00	5.52	1.79		
	소득적정감	4.00	5.00	6.00	5.04	1.70		

*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자료 때문임.

생활격차감은 -3점-1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0점-13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소득적정감은 1-10점의 점수분포를 가짐.

〈표 2〉 과정요소 및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가계재무관리행동	25th	50th	75th	평균	표준편차	
전 체	3.12	3.65	3.94	3.54	.60	
하위영역	계획	3.00	3.42	3.86	3.40	.77
	수행	3.22	3.65	4.00	3.62	.65

경제복지감	25th	50th	75th	평균	표준편차	F값	
생산판매직	1.98	2.45	2.75	2.40	.75	A	...
사무직	2.24	2.75	3.34	2.78	.74	B	26.82
전문관리직	2.56	3.45	3.80	3.25	.83	C	
전 체	2.25	2.75	3.37	2.80	.84		

***p<.001

A B C는 Duncan's 값임.

을 중간점으로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복지감을 보였다. 하위 25%의 경제복지감은 평균 2.25점으로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상위 25%도 3.37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판매직이 2.40점, 사무직 2.78점, 그리고 전문관리직 3.25점으로 나타나,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전직종의 취업주부가 중간점보다 낮은 경제복지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경제복지감을 조사한 선행연구(1994; 한정화, 1997; Titus, 1988)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주부의 취업이 경제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mith, Ultee & Lammers, 1996), 전업주부에 비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보고 한 Sumarwan과 Hira(1993)의 보고와는 유사한 경향이다.

2. 도시 취업주부의 과정요소·산출요소에 대한 투입요소의 영향력

취업주부의 투입요소인 자원 및 요구가 과정요소인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 산출요소인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연령($\beta = -.13$), 학력($\beta = .24$), 사무직($\beta = -.15$), 재무관리지식($\beta = .13$), 생활정보활용도($\beta = .51$), 소득적정감($\beta = .0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투입요소는 35.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가, 재무관리 지식이 많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 수행은 연령($\beta = -.08$), 학력($\beta = .21$), 생산판매직($\beta = -.16$), 사무직($\beta = -.19$), 의사소통도($\beta = .13$), 생활정보활용도($\beta = .53$), 소득적정감($\beta = -.1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투입요소는 34.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판매직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가, 의사소통도가 많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투입요소 중 생활정보활용도는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 모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로 나타났다. 즉 가계재무관리에 생활정보활용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취업주부 가계에 있어 유용한 정보의 선택적 수용과 이의 적절한 활용능력이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고보선, 1996; 홍향숙, 1997)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학교교육에서의 가계재무관리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의사소통도는 부부간의 가계재무관리 전반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가계재정목표의 조정이나 재합의 등이 용이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계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상태를 분석·평가하는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의사소통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은 가계총소득($\beta = .29$), 생활정보활용도($\beta = .22$), 생활격차감($\beta = -.12$), 소득적정감($\beta = .32$), 직업태도($\beta = .2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투입요소는 44.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생활격차감이 낮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낮을수록, 직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적정감과 가계총소득은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자원의 평가로서 소득적정감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고보선, 1996; Porter & Garman, 1993; Royal, 1995)와 유사한 결과로, 시장경제 체계에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교환수단인 소득은 경제생활 만족에 필수적인 물적 자원이며, 이러한 자원의 양이 많거나 혹은 자원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지각할수록 취업주부가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가 직장일의 보수·대우·전망 등

〈표 3〉 도시 취업주부의 과정요소, 산출요소에 대한 투입요소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계재무관리 계획		가계재무관리 수행		경제복지감	
		b	β	b	β	b	β	b	β
자	연령	-.011	-.133**	-.007	-.088*	-.001	-.017		
	학력	-.118	-.239***	-.095	-.209***	-.011	-.018		
	생산판매직	-.107	-.072	-.213	-.157*	.013	.007		
	사무직	-.215	-.146*	-.262	-.193**	-.017	-.009		
	가계총소득	.000	.013	.000	.003	.000	.228***		
원	재무관리지식	.048	.133**	.010	.030	-.000	-.002		
	의사소통도	.024	.029	.093	.125***	.056	.059		
	생활정보활용도	.498	.510***	.469	.526***	.255	.216***		
요	생활격차감	-.011	-.045	.009	.025	-.054	-.118**		
	소득적정감	.037	.090*	-.043	-.114**	.157	.320***		
	직업태도	.013	.012	-.005	-.005	.293	.230***		
상수		2.23		2.65		.17			
R ²		.35		.34		.44			
F비		24.59***		23.65***		39.26***			

※ 직종 : 준거집단 : 전문직 비교집단 : 생산판매직 사무직

*p<.05 **p<.01 ***p<.001

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 증가되어, 그 결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Hanson, 1991; Hanson & Solane, 1992)과 유사한 경향이다.

그리고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Bowen et. al., 1997에서 재인용). 즉 생활정보활용도는 가계의 자산형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정보활용 및 정보판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격차감이 낮을수록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Danes(1991)와 김순미(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계재무관리를 할 때 수행능력이 높은 취업주부는 가계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둬으로써, 가계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족할수록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도시취업주부의 투입요소·과정요소·산출요소 간의 인과관계

체계요소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각 유형별로 세 개의 군으로 형성된 요소를 대상으로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첫번째는 투입요소군(자원·요구)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번째는 투입요소군(자원·요구)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번째 중회귀분석은 투입요소군(자원·요구), 과정요소(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능력), 산출요소 중 경제복지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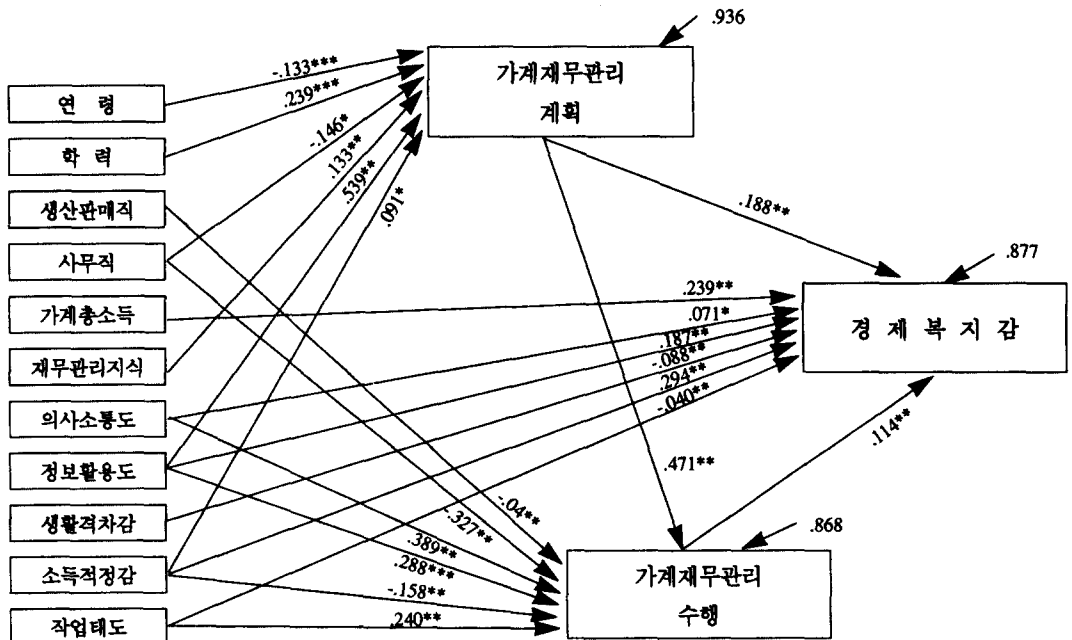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투입요소가 가계재무관리능력을 경유하여 산출요인인 경제복지감에 작용하는 인과효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계재무관리계획		가계재무관리수행		경제복지감	
			b	β	b	β	b	β
자 원	연령		-0.11	-.133**	-0.003	-.036	-0.000	-.005
	학력		-.118	-.239***	-.043	-.096	.005	.009
	생산판매직		-.107	-.072	-.156	-.114	.033	.019
	사무직		-.215	-.146*	-.173	-.127***	.027	.015
	가계총소득		.000	.013	.000	.007	.001	.239***
	재무관리지식		.048	.133**	-.010	-.032	-.010	-.023
	의사소통도		.024	.029	.082	.109***	.069	.071*
요 구	생활정보활용도		.498	.510***	.257	.288***	.219	.187***
	생활격차감		-.011	-.045	.017	.049	-.041	-.088**
	소득적정감		.037	.090*	-.060	-.158***	.138	.284***
과정 요소	직업태도		.013	.012	-.006	-.006	.306	.240***
	가계재무관리계획				.432	.471***	.224	.188***
						.146	.114***	
상수			2.23		1.67		.107	
R ²			.35		.488		.490	
F비			24.59***		39.91***		35.18***	

※ 직종 준거집단 : 전문직 비교집단 : 생산판매직 사무직
*p<.05 **p<.01 ***p<.001

〈그림 1〉 주관적 경제복지감의 인과모형



〈표 5〉 체계요소 간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 과 효 과			비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인과 효과	
연령	.017	-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133*.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133*.471*.114	-.0118	-.0288
학력	.376	-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239*.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239*.471*.114	.057	.319
생산판매직	-.322	-	가계재무관리수행경유 : -.114*.114	-.013	-.309
사무직	.014	-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146*.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146*.471*.114	-.027	-.013
가계총소득	.474	.239	-	.239	.235
재무관리지식	.136	-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133*.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133*.471*.114	.032	.104
의사소통도	.217	.071	가계재무관리수행경유 : .109*.114	.084	.013
생활정보 활용도	.327	.187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510*.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510*.471*.114 가계재무관리수행경유 : .288*.114	.344	.017
생활격차감	-.257	-.088	-	-.088	-.167
소득적정감	.487	.284	가계재무관리계획경유 : .090*.188 가계재무관리계획·수행경유 : .090*.471*.114 가계재무관리수행경유 : -.158*.114	.142	-.004
직업태도	.382	.240	-	.240	.142
가계재무관리 계획	.276	.188	가계재무관리수행경유 : .471*.114	.241	.035
가계재무관리 수행	.100	.114	-	.114	-.014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1개의 투입변인은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과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매개로 하여 경제복지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변인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투입요소 중 가계총소득($\beta = .24$), 의사소통도($\beta = .07$), 생활정보활용도($\beta = .19$), 생활격차감($\beta = -.09$), 소득적정감($\beta = .28$), 직업태도($\beta = .24$), 재무관리 계획능력($\beta = .19$), 재무관리 수행능력($\beta = .11$)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경제복지감의 전체 변량에

49.0%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생활격차감이 낮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질수록,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어,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재정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다는 Royal(1995) 및 다수의 선행연구들(Kathleen, 1994; Kratzer, 1991; Porter, 1990)과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IMF 체제이후 취업주부가 가계재무관리 계획·수

행 능력 모두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복지감 향상에 가장 좋지만, 계획과 수행 능력 중 계획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가계관리자인 취업주부가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한된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혜선·배미경, 1998).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의 계획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주나 월단위의 가계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계자원을 배분하며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취업주부는 경제복지감 향상을 위해 가계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계구성원들과 전반적인 토의를 통해 가계의 주요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며, 이를 가계상황에 적절히 적용·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과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학력, 생산판매직, 사무직, 재무관리지식은 가계재무관리 계획을 매개로 하여, 또는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매개로 한 다음 경유하여 경제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생활정보활용도는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 가계재무관리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는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을 매개로 한 다음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경유하여 경제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능력이 향상되어 경제복지수준이 직·간접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내·외의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관리하여, 이를 가계재무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경제복지감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득적정감은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직접효과는 물론 가정경제기여도를 경유하여 경제복지감에

간접적인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계선자·강기정(199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끊임없는 구매결정과 소비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주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교환수단인 소득이 우선적인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정경제기여도를 높게 인지하고 이로서 경제복지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체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매개변인으로 우선 가계재무관리 계획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재무관리능력은 경제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경유하여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복지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의 직접효과에서는 가계재무관리 계획행동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를 볼 때 가계재무관리 계획행동이 높은 취업주부는 가계재무관리 수행 수준을 높게 인지하며 궁극적으로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직종별로 가계재무 상태를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재무상담과 설계가 필요하며, 취업주부가 가계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나아가 정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가계재무관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사회적 차원에서 재무관리와 관련한 캠페인이나 반사회 등을 통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행동에 차이가 나타난 점을 볼 때, 정규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계재무관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가계의 장단기 목표설정 및 방법, 제품구매시의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및 재교육 차원에서 취업주부의 직장이나 공공사회 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관리직 취업주부의 바람직한 가계관리자의 역할모델이 제시될 때, 소비자 선택의 벤

드웨건(Bandwagon) 효과와 같이 다른 직종의 취업주부에게 효율적 가계재무관리에 관련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재무관리 체계적 접근에 의하여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가계재무관리 행동과 경제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에 따라 투입요소, 과정요소, 산출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계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취업주부의 자원과 요구의 투입요소,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과정요소, 경제복지감의 산출요소 간의 인과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요소인 가계재무관리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3.54점(5점 만점)으로 중간점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하위영역의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3.40점, 수행은 3.6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복지감은 평균 2.80점(5점 만점)으로, 중간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직종별로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전직종의 취업주부가 중간점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복지감을 나타냈다.

둘째,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연령($\beta = -.13$), 학력($\beta = .24$), 사무직($\beta = -.15$), 재무관리지식($\beta = .13$), 생활정보활용도($\beta = .51$), 소득적정감($\beta = .0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투입요소는 35.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가,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계재무관리 수행은 연령($\beta = -.08$), 학력($\beta = .21$), 생산판매직($\beta = -.16$), 사무직($\beta = -.19$), 의사소통도($\beta = .13$), 생활정보활용도($\beta = .53$), 소득적정감($\beta = -.1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투입요소는 34.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판매직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가, 의사소통도가 많

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제복지감은 가계총소득($\beta = .29$), 생활정보활용도($\beta = .22$), 생활격차감($\beta = -.12$), 소득적정감($\beta = .32$), 직업태도($\beta = .2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입요소는 44.0%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생활격차감이 낮을수록,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직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1개의 투입변인은 가계재무관리 계획 능력과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을 매개로 하여 경제복지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에 따라 투입요소, 과정요소, 산출요소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체계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취업주부의 자원과 요구의 투입요소,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과정요소, 경제복지감의 산출요소 간의 인과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주부가 IMF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계재무 관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즉 취업주부는 가계에서 가계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능력을 효율화하여 자원과 요구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복지감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계와 국민경제체계 간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는 근거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2)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 행동, 경제복지감 간의 직·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생애에 걸친 장·단기 가계재무목표의 설정,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 장래를 대비한 자산축적 등에 관련한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3) 생활정보활용도는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소득을 포함한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무수한 생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가계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판별과 수용능력을 갖추어 가계의 특성과 가족원의 욕구에 적합한 자원을 획득·관리해야 한다. 즉 생활정보활용도가 가계재무관리행동, 경제복지감에 중요한 변인인 만큼, 취업주부가 이용 가능한 가계 및 직장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 자원이 부족하므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한 정보를 분류·평가하여 정보관리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관리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푸르게 사는 모임(조선일보, 1997)에서 생활아이디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부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회공공단체나 정부는 취업주부 가계를 위해 공익성이 있는 생활정보를 선별·제공하고, 취업주부 특성별로 세분화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취업주부의 주관적 경제복지감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취업주부는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경제복지감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취업주부가 본인의 소득을 자신을 위한 여가비용이나 품위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기보다는 주로 자녀교육비나 가계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서 원인을 찾거나, IMF 이후 경제환경에서 직업의 불안정성이나 불연속성에 대한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가계·직장·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취업주부는 효율적 가계재무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가정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경제복지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역할공유를 통해 주부의 이중역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타아소를 제공하고, 정부는 취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관련지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즉 학급급식의 전면실시, 자녀의 방과후 지도, 출퇴근 차

량운행, 건강진단, 관공서 출입 도우미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집시 취업주부의 자녀수나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직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로 인해 취업주부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분석과 함께 적절한 제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주부의 특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정교한 척도개발과 정확한 표집이 의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직종별로 특징 있는 사례들을 덧붙여서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가 예상되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휴여성 인력의 활용 및 취업여성의 복지정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에서 가계재무관리가 경제복지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취업주부가 IMF 이후 경제체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가계재무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취업주부의 가계를 위한 가계재무 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계선자·강기정(1998).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21-38.
- 2) _____·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8.
- 3)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4)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

- 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5) 김순미(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 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100.
 - 6) _____·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7) _____·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8)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 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9) 두경자(1990). 가정관리체계 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10) 이기춘(1988). 소비자교육학. 서울 : 교문사.
 - 11)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 학지사.
 - 12)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통계연보. '98 연구보고서 230-2.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4) _____(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230-9.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5)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6)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17) Bowen, C. F., Lago, D. J., & Furry, M. M.(1997). Money management in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a racial, ethnic, and limited income perspective.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9(2). Fall. 32-42.
 - 18) Bryant, W. K.(1988). Durables and wives' Employment yet agai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7-47.
 - 19) Danes, S. 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 Path Model.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9(4). 282-291.
 - 20) Daniel, R. M., & Maria, C.(1998). Economic well-being following an exit fro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May. 476-492.
 - 21)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Allyn and Bacon, Inc.
 - 22) Enevoldsen, B. L.(1994). *Factors that influence a rural financial manager's satisfaction with current economic well-being and ability to achieve success and get ahead*. University of Minnesota. Ph.D. (Abstract).
 - 23) Fitzsimmons, V. S., Hira, T. K., Bauer, J. W.,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Fall. 257-274.
 - 24) Foster, A. C., & Mammen, S.(1992). Impact of wife's employment on service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 9-18.
 - 25) Garman, E. T., & Fogue, R. E.(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 Houghton Mifflin.
 - 26)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nd. ed.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27) Godwin, D., & Carrol, D. 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28) Hanson, S. 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3-634.
 - 29) Hira, T. K.(1986).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of two-income households*. In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utheastern Regional Association for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Akron, OH.
 - 30) _____(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

- ment :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10-22.
- 31) Hyun, E., Bauer, J. W., & Hogan, M.J.(1993). Resource adequacy percep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wives and husbands : A nonrecursive model.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Fall. 215-236.
- 32) Kathleen, M. M.(1994). *Conflict and financial decision making : A study of financial satisfaction for husbands and wives*. University of Minnesota. Ph.D. (Abstract).
- 33) Kennickell, A. B., Starr-McCluer, M., & Sunden, A. F.(1997). *Saving and financial planning : Some findings from a focus group*.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8.
- 34) Kratzer, C. Y.(1991).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ree cohorts of rural female household financial managers(women financial managers)*.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Abstract).
- 35) McGregor, L. T., & Goldsmith, E. B.(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ummer. 2-6.
- 36)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37) Porter, N. M.(1990). *Testing a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Blacksburg,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 38) _____ & Garman, 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39) Prochaska-Cue K.(1993). An exploratory study for a model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1-134.
- 40)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41) Rodgers, Ruth-Anne.(1995). *Financial management planning styles among elected households of retirement age women living alone : Is rehearsal an influence?*. Oregon State University. Ph.D.
- 42) Royal, J. H.(1995). *Financial well-being : A conceptual model of two north carolina countries*. North Carolina State Univ. Ph.D.
- 43) Rubin, R. M., Riney, B. J., & Molina, D. 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 44) Savita, S., & Kamala, S.(1990). Conceptual framework to study rural women's work patterns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family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341-346.
- 45) Smits, J., Ultee, W., & Lammers, J.(1996). Effects of occupational status differences between spouses on the wife'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 Findings from 12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Feb. 101-115.
- 46)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47) Titus, P. M.(1988).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ies of money managers : Bases for household net worth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o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
- 48) Walson, C. O.(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D.

-
- 49) _____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 50) Williams, F. L. & Ness, A. J.(1998). Household activities of men and women and their effect upon perceived sense of control and satisfaction with level of living.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22(3). Sept. 169-190.